

9월과 수능영어의 대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등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지하고자
하는 등급에 맞추어 다양한 전략을
짜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절대평가에 따라
단순히 높은 점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등급에 맞추어 학습계획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영어영역

중/하위권 학습전략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먼저 단순하게 '높은 점수를 맞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자칫 학습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절대평가는** 상대방의 점수에 따라 나의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확보한 점수와 기준으로 잡힌 점수에 해당 될 때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유형과 불리한 유형을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5등급의 학생이 3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전 등급에서 어려워하는 빈칸추론을 공략하기보다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특히 시간이 부족하여 대충 풀게 되는 장문유형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EBS 연계교재의 직접 반영은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나, 그래도 출제 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교재이므로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연계교재를 충실하게 검토**해 볼 것을 권합니다. 또한 영어 학습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학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어휘는 이전과는 다르게 같은 단어라 해도 지문에서 다른 의미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어휘의 반복학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듣기부분에서도 취약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어휘와 마찬가지로 듣기의 경우도 지속적인 반복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표하는 등급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표로 하는 등급을 설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듣기를 다 맞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연계교재의 꾸준한 검토 외에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을 같이 권합니다.**

간접연계와 비연계의 비중이 늘어나 외부교재의 활용을 고민해볼 수 있으나,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다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시험에서 자신이 확보해줘야 할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위권 학습전략

상위권의 경우 목표등급이라는 관점보다는 확보해 놓은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위권에 진입한 학생들은 자신의 점수가 등급컷에서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등급컷과 큰 점수 차이를 벌여 놓지 않은 상태라면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우선 그간 자신이 치러왔던 **모의고사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는 교재들(외부교재포함)에서 가장 취약한 유형이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학습계획을 짜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연계교재를 무리하게 암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현재 연계방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수능영어의 유형별 출제 방식의 공통점은 **글의 구조와 흐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문의 구조와 흐름에 대한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접연계의 비율이 줄어들었고, 간접연계와 부분연계 및 비연계의 비율이 높아진 만큼 다양한 외부지문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외부 지문의 학습에 있어서는 그간 본인이 공부해왔던 **연계교재 및 기출문제 분석을 활용하여 외부지문에 대한 식견을 높이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학습 외의 또 다른 강조하고 싶은 점은 **출제의 난이도에 대해 절대로 방심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16학년도 수능의 경우 당시 다수의 수험생들이 영어의 경우 쉬운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6월과 9월은 수능의 예비고사일 뿐 실제 수능이 아닌 관계로 수능 영어의 난이도를 선볼리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위권 학생들은 확보한 **등급의 유지를 목표로 하여, 취약한 유형의 집중적인 학습과 다양한 지문에 대한 학습을 통해 비연계를 대비하여**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길 바랍니다.